

## ■ 실속 재테크

불확실 증시 틈새 투자처 '공모주 펀드'

# 공모주 상장후 차익실현...안정+수익 '두토끼'

## 기관 통해 물량 배정...개인보다 유리해 공모 참여 않는 기간엔 국공채 등 투자

지난 15일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실시한 YG엔터테인먼트의 공모주 청약에 올해 코스닥 최대 규모인 3조 6,380억이 몰렸다. 8월 이후 유럽발 금융위기로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며 다소 위축되었던 공모주 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으며 GS리테일, LG 실트론, 현대오일뱅크, CJ헬로비전 등 대내외 종목이 IPO(기업공개나 주식 공개)를 추진 중으로 공모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이 커지고 있다.

공모주 청약이란 증권거래소에 기업 공개를 통해 일반인으로부터 청약을 받아 주식을 배정하는 것이다. 공모주 청약에 의한 주식 취득은 공모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후 주가가 보통 발행기를 웃돌기 때문에 공모주 청약을 하게 되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어 인기가 높다. 하지만 개인에게 전제 제공되는 20~30% 정도만 배정되므로 YG

엔터테인먼트의 청약경쟁률이 560대 1을 넘고 지난 7월 삼원강재는 707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경쟁이 치열하고 주간증권사에서 만 청약이 가능해 청약에 불편함이 따른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면서 공모주 시장의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상품이 공모주 펀드이다. 공모주 펀드는 상장직전 주식공모에 참여한 뒤 상장 이후 적당한 시기에 차익 실현을 해 수익을 내는 구조로 기관투자자의 지위로 청약에 참여하므로 개인투자자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공모주 펀드에는 ▲주식 혼합형과 ▲채권 혼합형 두 종류가 있다. 채권 혼합형은 일반 주권형 펀드와 같이 채권 투자를 하면서 공모주에 자산의 10~30% 정도의 금액을 청약하고, 주식 혼합형은 IPO가 없는 평상시에는

단기 차익상품이나 은행 예금에 투자하며 공모주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산의 90%까지 청약을 할 수 있다.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증거금이 면제되므로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 참가할 수 있다.

공모주 펀드의 수익률은 펀드 운용자에 따라 차이가 많기 때문에 펀드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높은 공모주 투자효과를 추구하는 투자는 유진자산운용의 '유진챔피언 공모주 주식 혼합형 펀드'를,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는 하이자산운용의 '하이공모주 플러스 10·20 채권 혼합형 펀드'와 ING 자산운용의 'ING 파워투기 공모주 증권 투자 회사 10·1'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유진투자증권 광주지점 정계우 부지점장〉  
/정리=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 국내 등록 수입차 60만대 눈앞

올해 들어 수입차 판매가 늘면서 국내에 등록된 수입 승용차가 60만대에 바짝 다가섰다. 17일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현재 국내에 등록된 수입 승용차(상용차 제외)는 총 59만6398대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차와 독점 수입권자 이외의 비공식 수입업체에 의해 병행수입된 승용차를 모두 포함한다. 이에 따라 이달 말에는 수입차가 국내에 상륙한 이후 처음으로 6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브랜드별로는 BMW가 10만4559대를 기록하며 홀로 10만대를 넘었다. 등록된 수입 승용차 가운데 17.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 광주은행, 리더스클럽 실무자 초청 강연

광주은행은 17일 광은리더스클럽 실무자들을 초청, 외환·세무·글로벌 금융시장 전망 등 전문분야에 대한 특별 강연회를 개최했다. 외환·세무·

2012년 경제전망 관련 협업 전문가 3명을 강사로 초빙해 최신 실무자료를 중심으로 특강이 진행됐다. 〈광주은행 제공〉

## 아시아나항공 고객만족도 1위

아시아나항공이 국내 3대 서비스 품질 평가기관의 고객만족도 1위를 석권했다.

아시아나항공은 17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2011년 한국서비스 품질지수(KS-SQI) 1위 기업 인증 수여식'에서 항공 부문 1위 인증패를 받았다.

KS-SQI는 한국표준협회(KSA)와 서울 대학교 경영연구소가 국내 산업과 소비자 특성을 반영해 공동 개발한 것으로 아시아나항공은 차별화된 서비스, 신뢰성, 친절성 등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항공 부문 1위에 선정됐다. 〈연합뉴스〉

## 토마토저축銀 인수 '신한-우리' 2파전

## 내주 우선협상자 선정

알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화력을 집중하기 위해 예비 입찰 때 참여했던 제일저축은행은 포기하고 토마토저축은행에만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제일저축은행에는 KB금융지주가 본입찰서를 냈다.

KB금융지주 측은 "제일저축은행 인수에 만 힘을 쏟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일저축은행 인수전에는 하나금융지주 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프라임·파랑새저

축은행 패키지는 아주캐피탈과 하나금융지주, BS금융지주 등이 본입찰 참여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는 이번 저축은행 본입찰에 참여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상황인데, 제일저축은행과 프라임·파랑새저축은행 패키지에 모두 참여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이들 저축은행에 대한 본입찰은 오후 5시 마감되며, 이르면 내주 중에 각 저축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 새 주인이 나오게 된다. 〈연합뉴스〉

골프레슨의  
줄을 바꾸다

김현의 마음골프  
골프는 마음의 수련으로 향상된다!

오태훈의 캐그골프  
이보다 더 재미있는 골프 레슨은 없다!

전우희의 스마트 골프  
분석이 함께하는 펜을 골프 레슨의 친수!

에디조의 베이직 골프  
체계적인 정석골프 레슨을 지향한다!

5분 레슨이 충분 하시던가요?

이제, 사이언트 골프존에서 국내 유명 프로들의 전문 레슨을  
한시간 동안 집중과 외 받으세요!!

5분부터 상급자까지 실력별 개인맞춤 레슨

GOLFZON MYT 보고 + 듣고 + 따라하기

521-0071 www.ggolfzon.com

전우희 프로 단독 레슨  
11월 30일(수) 전우희 프로  
사이언트 골프존 단독 레슨 예정!  
상세일정은 회원들께 추후 통보

## “웨딩, 객실 상무지구 관광호텔 예술의 전당의 대한민 행사”

새롭게 준비한 가을웨딩  
총 100가지 부페

객실 500석 및  
조식뷔페(30종) 무료제공

각종여회행사 할인!  
(돌잔치, 회갑연, 송연모임, 기업행사)

광주 최대의 5000평의 초대형주차장은  
호텔 예술의 전당 뿐입니다!

뷔페식비는 대형예식장에 비해 훨씬 경제적입니다.  
가을뷔페는 총 100여가지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및 통침차와 즉석김치로 모십니다.  
하객 400인 이상 보증시 원목침대 및 협탁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성수기 훈집한 대형 예식장에 비해 훨씬 여유있는  
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관광호텔 예술의 전당  
362-0011, 600-9999

## 경제 프리즘



하동만

올해는 시장기능 중심의 신자유주의 경제의 한계가 지구촌을 달군 한 해였다. 3년만에 재현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월가를 점령하라'는 젊은이들의 분노로 폭발하고 있고 국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유층과 빈곤층, 중앙과 지방의 양극화가 국에 달하고 있다. 지역에서도 청년실업 급증속에 일자리의 미스매치가 여전하고 자영업자 몰락이 현실화 되고 있다. 4명의 경제전문가로부터 매주 금요일 총 7회에 걸쳐 경제현안에 대한 협의를 들어본다.

한국은행이 국민소득을 발표할 때마다 여러 환율을 가지고 달려로 표시된 소득을 계산해 보곤 한다. 우리나라에는 2007년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했지만 곧 1만7천 달러로 내려갔다 최근 2만 달러에 다시 턱걸이 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 환율은 805원으로 계산해보면 현재 우리 소득은 3만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국민소득이 왔다갔다 하는 원인의 상당부분은 '원'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환율이 안정되지 못한 탓이다.

바꾸어 말하면 국제기준으로 보아 우리 경쟁력이 아직 선진국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30여년 경제관료로 봉직하는 동

면 기후변화 대응,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친환경 녹색성장은 2단계 녹색전진화 전략이 될 것이다.

세 번째 조건은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이다. 우리 농촌은 새마을운동으로 초가지붕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뀌었으나 아직 궁한 틀이 벗지 못하고 있다. 농가소득·문화혜택도 격차가 크다. 대부분의 선진국, 특히 유럽에서는 농촌이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조상들은 동네 기와집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언제 저런 기와집에서 살수있을까 하고 부러워 했다. 우리 농촌도 반듯한 경관을 갖출 때 선진국과 질 것이다.

네 번째 조건은 여성의 경제 활동을

## 선진국으로 가는 다섯 가지 조건

안 뇌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은 왜 우리는 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꾸 하등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었다. 공직을 떠난 지금 애여 어렵듯이 그 실마리의 일부가 시야에 잡힌 것 같아 말해보자 한다.

무엇보다 선진국의 첫째 조건은 1인당 소득이 3~4만 달러에 이르고 경제·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튼튼해야 한다. 우리 경제는 조선·철강·자동차·석유화학 등 전통산업이 세계 1~6위로 최상위에 있고, 정보통신·비이오 등 첨단 기술집약 분야도 선두그룹에 속한다. 이처럼 전통·첨단산업을 함께 발전시켜나가면서 경제규모도 갖춘 나라는 세계에서 미국·일본·독일에 불과하고 미래의 중국과 인도가 이 대열에 설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해 산업구조를 선진국으로 전환시키고 경제안정 기조를 정착시켜야 한다.

두 번째 조건은 푸르고 기름진 국토, 녹색환경의 조성에 있다. 선진국과 산하가 헐벗은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에는 일제 수탈과 6.25전쟁으로 폐허가 되다 시피한 국토를 각고의 노력 끝에 가꾸었다. 이것이 기름진 국토를 가꾼 1단계라

대폭 늘리는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5%에 불과하다. 일본은 62%, 미국은 69%, 경제협력기구(OECD) 평균으로는 61%이다. 앞으로 가속화될 고령화에 대비하고 높아질 소비수준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 생애 걸쳐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육시설의 확충, 직장생활 지원을 위한 여성 친화적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소득·취업 등 모든 분야에서 기대치를 낮추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연 3~4%를 상회하기 어렵다.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 20% 이상의 수익이 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자영업, 대기업이 아니면 직장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풍조 등 이 모든 의식이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경제활성화 원천은 불로소득이 아니라 미국의 밀케이츠나 일본의 손정의, 우리의 박자성·김연아 선수와 같이 재능과 창의를 통해서 발현되어야 한다.

〈전남발전연구원장〉

▲특히청장  
▲국무총리실 경제조정관  
▲전경련 전무